

## 종합



안산 둠구장 조감도.

안산 둠구장 협약 체결 내용보니

市는 부지 제공, 업체는 낙첨사 건립

광주 새 야구장 대우건설 제안서 관심

대우건설,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오는 22일 광주시에 야구장이 포함된 관광레저복합단원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6일 경기도 안산시와 현대컨소시엄이 맺은 둠구장 사업협약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둠구장 건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첫 사업협약으로, 광주시가 만일 민간투자를 통해 새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 협상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산시는 16일 “현대건설, 서희건설, 반도건설, 현대백화점, KT, 산업은행, 현대증권 등이 참여한 현대컨소시엄과 안산도시공사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안산시 초지동에 둠구장, 스포츠센터, 테마파크, 주상복합아파트, 테마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백화점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둠구장과 안산시 단원구의 청사를 건립해주는 조건으로 안산시 소유 자연녹지지역 8만7천656㎡에 공동주택을 짓어 분양하도록 했다. 현대컨소시엄은 이 부지에 62층 2개 동, 51~54층 9개 동 등 주상복합아파트 11개 동 2천700가구가 건설할 예정이다. 이 부지의 가격은 4천99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안산시는 또 둠구장과 부대시설 부지로 시유지인 11만8천135㎡

를 제공하며, 이 부지에는 둠구장, 빙상장, 공연장, 전시회 등을 물론 유스호스텔과 스카이박스, 야구박물관, 야구음악점, 스포츠센터, 키즈파크, 테마파크 등의 수익시설이 들어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는 여대생 도시?

시민 1만명 당 746명…전국 2위

일자리 부족 속 청년실업 문제 심각

광주 인구에 비해 여대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생 인구 밀집도가 높아 늘어나는 대학생에 비해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 등 고학력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지역 인구 1만 명당 여자 대학생 수는 746.1명으로, 충남(877.0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구 밀집도를 나타냈다.

광주에 여대생 인구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여학생들의 경쟁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지역 대학 진학을 꺼리기 때문에 풀이된다.

또 인구 1만 명당 대학생 수는 광주가 878.6명으로 충남(1천147.9명), 강원(928.0명), 경북(893.3명) 다음으로 많았다. 충남의 대학생 인구 밀집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가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생 인구 밀집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327.0명)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수는 지난해 서울이 64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대학생의 5분의 1 정도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51만7천명), 부산(28만5천명), 경북(23만2천명), 충남(22만1천명) 순으로 많았다.

광주는 지난해 대학생 수가 11만6천786명으로, 10년 사이 8천856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대학생 수는 307만4천명으로 2008년(304만명)에 비해 3만4천명이 늘었다. 이는 1990년의 대학생 전체 수인 146만6천명보다 배가 넘어서, 학령 인플레이션에 심해졌음을 보여졌다. 대학생 수는 1985년 126만명, 1990년 146만6천명, 1995년 188만9천명으로 100만명 선을 유지했다가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2000년 282만9천명, 2001년 293만7천명을 기록했고 2002년 302만명으로 300만명 고지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여년 동안 대학생 수가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그 당시 늘지 않아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고학력자의 대량 배출로 취업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을 외면해 고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미기자 emlee@yna.co.kr

## 여수 크루즈 기항 유치

쇼핑·관광소비 등 경제 부가가치 증가

로 열 캐리비언 크루즈(Royal Caribbean Cruise) 선사의 크루즈 운항은 19회 유치할 계획이다.

2008년 6회 운영됐다가 작년 중단됐던 부산 준모항 운영 횟수는 올해 크게 늘었다. 모항(home port)은 크루즈선의 종점으로, 여객을 태우는 곳인 데 비해 준모항은 종점이 아니면서도 일부 여객이 승선할 수 있는 항이다. 시운사의 크루즈는 오는 5월 7일 인천항에서 올해 첫 기항을 하고, 로열캐리비언크루즈는 28일 부산에서 국내 승객들을 처음으로 태운다.

이들 크루즈선은 7만급 안팎의 규모다

/연합뉴스

## “대학 등록금 산정근거 공개해야”

초중고 교과운영 계획·교원 성과금 현황도 의무화

대학은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등록금 및 학생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초·중·고교가 주가 공시할 항목은 ▲수업공개 계획(4월) ▲교과·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4월, 9월) ▲학교계약(5월) ▲급식 사고 발생·처리(5월) ▲학교폭력 예방교육(5월) ▲교원 평가(2월) ▲교원 성과상여금(9월) ▲학생체력 증진(5월) ▲학교 평가(2월) 등이다.

교정과 학과부는 초·중등학교는 9개, 대학은 6개 항목을 정보공개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대부분 항목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대학은 13개,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을 공개해왔으나 이

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초·중·고교가 주가 공시할 항목은 ▲수업공개 계획(4월)

▲교과·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4월, 9월) ▲학교계약(5월) ▲급식 사고 발생·처리(5월) ▲학교폭력 예방교육(5월) ▲교원 평가(2월) ▲교원 성과상여금(9월) ▲학생체력 증진(5월) ▲학교 평가(2월)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돼 전형료 내역을 내놓으면 입시 때마다 반복되는 ‘전형료 장사’ 논란의 시비가 가려지고, 등록금 산정근거를 밝히면 등록금 책정 때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했다.

/연합뉴스



전기자동차 공장 기공식

16일 영광군 대마면 대마일반산업단지에서 ‘전기자동차 산업 출범 및 (주)CT&amp;T 생산공장 착공식’이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해 이낙연 국회의원, 정기호 영광군수, 김종수 (주)CT&amp;T 사장, 회사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 국민연금 더 받는다

내달부터 2.8% 상향…고소득자는 7200원 더 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준 수급자들의 연금수급액이 2.8% 늘어난다. 또 15년만에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과 7월부터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최대 7천200원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260만명의 올해 연금수급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2.8% 인상키로 하고 국민연금심의위

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1만4천원(2.8%)이 인상된 51만4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140만8천명의 수급 대상 배우자는 월 1만8천400원, 23만7천명의 수급 대상 자녀·부모는 월 1

만2천260원을 더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수급대상자가 375만명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8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 액은 국민연금 기업과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의 상·하한액을 소득변동률(2.3%)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천명은 보험료를 최대 월 7천200원 더 내게 된다.

/연합뉴스

‘행복마을’ 상표권 등록

전남도는 16일 도내 농어촌개발사업 대표 브랜드인 ‘행복마을’이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행복마을 상표권을 출원한지 14개월 만으로, 전남도는 ‘행복마을’이 보통명사여서 그 자체로 상표등록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 이미지인 한옥의 기와문양 아래 파란색으로 행복마을이라는 글씨를 적어 넣은 로고를 만들어 상표권을 등록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이성태 한국은행 출신 후임에 김종수 주(駐)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내정했다.

서울 출신의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 한은총재 김종수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이성태 한국은행 출신 후임에 김종수 주(駐)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내정했다.

서울 출신의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 판결 공시

사건번호 : 광주지법법원 제2008-108 내지 117 도로법 위반  
피고인 : 유한회사 대명, 유한회사 상운문수  
위고고는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광주지방법원 복지지원 판사 안상원

국회법 제278호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국회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거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기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17.

## 목포시 장

1. 주민 의견청취 공고 사항

○ 삼미기아대성당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도로 변경, 주차장 신설 및 폐지, 풍문 신설

○ 용호초등학교 후면(용호종합노인복지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 도로 변경

○ 신재민 건설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도로 변경 및 폐지

○ 목포대교 레이더기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도로 신설

2. 공정기준 및 절차

○ 공정기준 : 2010. 3. 17 ~ 2010. 3. 31(15일간)

○ 공고장소 : 목포시 도시계획과, 원도심지자체관, 건설과

3.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도서는 재개설하여 공람장소에 배치합니다.

4. 기타 지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도시계획과(061-270-8625), 원도심지자체관(061-270-8744), 건설과(061-3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다공인증개사

☎ (063) 581-5909  
☏ 010-8004-5900  
(진주 서해안, 새만금 친환경소)

세인금·법신...-경포...경포...상포...  
모방 해수욕장까지의 부지 레트로설

▶ 편선건물(투자, 직영,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기 7억

- 직영 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응자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편선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수임수

를 갖춘 비단과 보이는 전망 좋

은 곳으로 투자 적합함.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35만원